

베이커리업계 전산화 현주소

내일을 향한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한 때

'정보화', '산업화', '시스템화' 등은 언제부터인가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런 단어로 통용되고 있다. 일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현대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베이커리업계는 전산화 작업을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했다. 늦은 출발이지만 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전산화로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베이커리업계의 전산화 현주소를 살펴본다.



컴퓨터 없는 현대 산업사회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1946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의 전자계산기인 에니악(ENIAC)이 개발되면서 본격화된 컴퓨터의 역사는 반세기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눈부신 진보의 바람을 일으켰다. 그 바람의 세기는 컴퓨터가 태어나기 전까지 하늘하늘거렸던 인류의 역사를 단박에 제압할 정보도 강력했다. 허튼소리라고? 그러나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컴퓨터는 분명한 대세인 것을.

컴퓨터는 스피치처럼 현대 사회의 구석 구석을 빨아들였다. 그리고 전보다 더 많은 물질적 풍요를 안겨주었다. 그것도 '효율'이라는 포장으로 깔끔히 갈무리한 상태로 말이다.

주문자동화, 프랜차이즈 전산화의 핵심

베이커리업계 중 프랜차이즈업체가 전산화에 손을 댄 것은 약 3년 전이다. 점포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변화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 특히 전화로 발주하는 방식은 갈수록 많은 오류를 발생시켰다. 손실률이 높아졌고 본사와 점주간에 발주 오류에 대한 시시비비가 끊이질 않았다. 자연 전산화의 핵심이 발주 시스템에 놓여졌다.

현재 프랜차이즈 전산화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TDS(Telecom Display System)이다. 한국 테크모아시스템에서 개발한 이 시스템은 각 점포에서 그날 주문량을 전화 모양의 TDS기에 입력하면 그 내용을 액정화면에 나타내고 본사 중앙컴퓨터로 전송하여 발주를 끝내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 시스템은 TDS기기를 통해 본사의 공지사항 등을 전송하여 의사소통을 매끄럽게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TDS를 도입한 업체들은 이후 손실을 및 점주와의 마찰이 줄어들었으며 중앙 컴퓨터의 데이터를 통해 기간별 매출 및 수요 추이를 분석하여 생산, 물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반응이다. 현재 TDS를 운용 중인 업체는 신라명과, 뉴욕제과, 파리카라상, 델리, 스위스식품, 동규제과 등이다.

특히 델리는 7월부터 TDS의 기능을 보강, 외상매매기능을 추가해 시행하고 있다. 외상매매기능이란 미수금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외상대금이 일정 한도액을 넘었을 때 자동으로 발주가 정지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델리측은 이 기능으로 미수금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려당은 팩스콘(FAXCON: Facsimile Connection System)으로 전산화를 구축, 이를 시행하고 있다. 팩스콘은 '手記전산표 입출력 시스템'을 말한다. 팩스콘은 원격지에서 손으로 기입한 주문서를 FAX로 전송하면 공중전화망에 연결돼 있는 컴퓨터가 FAX화상의 문자를 인식하여 이를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고 집계, 분류 등 필요한 작업을 실행한다.

고려당은 지난해 4월 22개 점포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했고 테스트 결과, 우려했던 문자 인식률이 98.7%에 이르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재 전국 200여 점포에서 팩스콘을 이용하여 발주를 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일부 특수지역을 제외한 전국 점포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영기획실 김형중 차장은 "아직 초기 단계라 시스템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 시스템으로 물류비 증가요인을 막을 수 있어 수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팩스콘의 정착을 낙관했다. 팩스콘을 시판한 효성 데이터시스템 최원국 과장은 "전송한 주문서가 본사와 점포에 남기 때문에 발주 오류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점이 팩스콘의 가장 큰 특

장"이라고 말했다.

아직껏 주문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크라운베이커리는 여러 시스템에 대한 검토 작업을 마치고 미국 아이텍社의 이지처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8월, 김해 지역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스템명은 주문자동화 시스템(Fax to PC System). 이 시스템은 팩스콘과 기능이 거의 비슷한데 MIS추진실 김정환 대리는 "데이터베이스 기능이 강화돼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크라운베이커리는 앞으로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 홍보를 통해 주문자동화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킬 방침이다. 한편 크라운베이커리는 현재 직영점에 POS(Point Of Sale)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썬메리제과는 직영 영업의 특성에 맞게 전산화의 폭을 넓혔다. 올 3월부터 전면 자동화 시스템은 점포관리 시스템으로 발주, 출고, 매입, 생산, 영업관리, 재고관리 등을 포괄한다. 썬메리는 이 시스템을 유통전문 소프트웨어업체인 키스크(KISC)에 용역을 주어 개발했다. 개발비는 1억원이 들었다.

영업부 박봉수 부장은 "전산화를 통해 관리 시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고 매출 추이를 분석, 효과적인 영업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점포가 늘어나면서 동반되는 과도한 업무량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시스템의 효과를 기대했다.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확산된 편의점과 함께 널리 알려진 POS시스템은 판매

시점에서 판매관리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널리 보급되어 지금은 산업 구역구석에서 활용되고 있다. 몇몇 프랜차이즈업체도 이에 관심을 갖고 도입을 추진했



POS

으나 시험단계에서 업계의 특성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 도입을 중단했다. 현재는 편의점업체인 AMPM 코리아

에서 설립한 꼬레뚜양에서 POS를 운용하고 있다. 베이커리사업팀장 오경호 과장은 "편의점의 POS망을 이용, 베이커리 사업에 알맞은 형태로 변형한 것이어서 커다란 추가 비용은 들지 않았다"며 "바코드 스티커를 붙일 수 없는 품목은 코드북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캠맹'에서 탈출할 수 있다

한편 윈도우 베이커리업계는 정보화 수준에서 '캠맹(컴퓨터 문맹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업소에서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극히 소수이고 초보적인 수준일 따름이다. 그런데 최근 한 전문 소프트웨어업체에서 일반 제과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명성하이테크는 지난해 12월부터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해 올 2월부터는 2개월간 수도권 지역 제과점 100여 곳을 상대로 시장조사를 벌였다. 이 회사는 시장조사 결과, 반응이 좋다고 판단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판에 나서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고객관리, 재료관리, 상품관리, 거래처관리, 경영관리 등의 항목이

들어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을 배합표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고객에게 컴퓨터 운세를 제공하기도 하며 이를 통해 파악된 기본적인 고객정보를 이용, 고객의 생일에 카드를 발송하는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명성하이테크 배홍순 대표는 "전문직중

의 전산화를 촉진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히면서

"이 프로

그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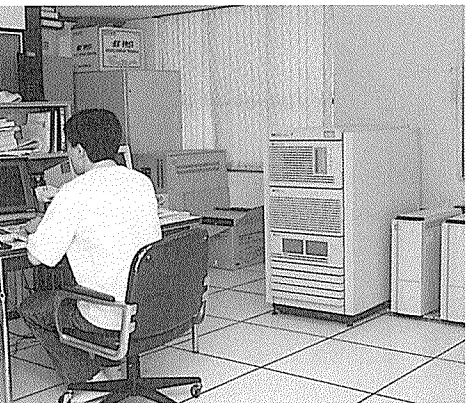
IDS

업소의 영업력을 키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장 환경이 생산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생산 주체인 업체들은 서로 수요 환경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고자 신경을 곤두세운다. 여기서 '정보'의 의미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정보란 단지 '많이 안다'라는 의미가 아닌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수용하지도 못할 정보는 혼란만을 일으키기 쉽다. 정보시스템은 정보의 홍수에서 혼란 없이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업계마다 전산화에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하는 이유는 정보시스템 구축에 있다.

상대적으로 전산화가 늦은 베이커리업계가 전산화를 정착시키려면 투자비용의 회수에 무게를 두어 조금하계 서두르기보다는 컴퓨터 마인드가 업계 전체에 퍼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듯하다. 전산화에 대한 현재의 낙관적인 분위기가 앞으로 현실로 나타나기를 기대해본다. [K] <글/손인수>



각 점포의 발주가 중앙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처리되고 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된다.